

5000원 막내린 치킨가격 논쟁 '2라운드' “프랜차이즈 치킨 왜 그리 비싸나”

과도한 마케팅 비용 거품·가격 담합 의혹까지...공정위 조사 나서

5000원짜리 롯데마트 치킨에서 촉발된 치킨가격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롯데마트가 15일 '퐁큰 치킨' 판매를 중단했지만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의 거품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싼 치킨 가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롯데마트 '퐁큰치킨'(900g)의 판매가격이 5000원인 반면 프랜차이즈업체의 치킨은 약 20% 용량(600~700g)은 적으면서 배 이상 비싼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 수준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롯데마트에서 5000원에 치킨 판매가 가능하다면 그동안 프랜차이즈업체들이 3배나 많은 가격을 받아왔던 것이 아니냐"며 프랜차이즈업체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결그룹이나 아이돌 등 유명스타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가격 거품을 야기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15일 현재 대한양계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육용실용계 시세에 따르면 광주지역 육계값은 대(1.6kg 이상, 중(1.4kg~1.6kg 미만), 소(1.4kg 미만) 모두 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400~1500원 수준인 육계가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로 공급되면서 많게는 1만8000원대의 치킨으로 가공 판매되는 것이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킨의 가격은 시중 닭 도매가격보다 10~15% 정도 비싸다. 또 본사가 제공하는 치킨 파

우어나 기름도 '노하우'를 내세워 도매가격보다 20~30% 가량 비싸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1만6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아 평균 5000원 가량 이익이 남는다고 해도 여기서 임대료, 매장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마리당 마진이 1000원 수준에 불과한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닭 시세나 소스·포장박스·절임무 등 부자재 가격 오름폭을 생각하면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며 "광고비도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담합 의혹까지 일면서 치킨의 합리적 가격

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일부 네티즌들은 프랜차이즈 상표권이 자영업자 개인이 즉석에서 튀겨 판매하는 치킨 값이 8000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프랜차이즈 업체 치킨 가격은 1만원에서 1만2000원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치킨 판매업자 5만여명과 양계농가 10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중인 한국가금산업발전협회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원가 내역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한 마리당 소비자 판매가격은 1만6000원선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담합 의혹을 분석키 위해 지난 10월 주요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의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스노우 부츠 "방수 짱"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스포츠 매장 직원들이 보온과 방수기능을 겸비한 패딩(스노우) 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전남 취업자 수 줄고 고용률 하락

전국 두달째 취업자 30만명 돌파와 대조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은 취업자 수가 줄어든고 고용률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개월째 3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6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3000명(-0.5%)이 감소했다.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56.2%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5000명(4.8%), 농림어업 3000명(26.4%)이 증가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타 서비스업 1만1000명(-2.0%)이 감소했다.

반면 구직자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0.3%포인트 하락한 2.3%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지만 이는 육

어나 가사, 취업 준비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2만4000명(2.4%)이 증가하면서 실업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남의 취업자는 8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명(-3.2%) 감소했다. 산업별로 광공업은 1000명(1.6%)이 증가했지만 SOC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1만9000명(-3.4%)이, 농림어업 1만2000명(-4.4%)이 각각 줄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내년 소매시장 사상 첫 200조 돌파할 것” “대기업 유통업체, 추가입점 철회하라”

내년 국내 소매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유통연구소는 15일 '2011년 유통업 전망보고서'를 내고 "내년 소매시장 규모는 올해 대비 5.7% 성장한 21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세계유통연구소는 올해 소매시장 규모를 작년 대비 8.4% 성장한 199조원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을 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도사리는데다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 규제 현실화 등으로 소매시장 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별로는 백화점이 한국형 복합몰로 약진하면서 올해보다 9.5% 성장한 26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대형마트도 저가 및 품질 정책, 직접주분생산, 온라인몰과의 유기적 성장전략 등으로 올해보다 6.1%늘어난 36조원의 매출로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합동대책위 촉구

지역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SSM 입점 저지 시민사회 제정당 합동대책위'가 1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상무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추가입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유통경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광주의 중소기업과 광주시민, 그리고 지자체는 더 이상의 출혈을 감내할 수 없다"며 "삼성테스코는 무의미한 SSM입점을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또 STS도 시개발과 이면계약된 대기

업유통업체는 지역 사회를 우롱하는 매각 공지놓음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발효됐지만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가맹점 전락수준으로 이미 낡은 법안이 됐다"며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호반경을 최소 1km로 확대하고 대기업 점포 등의 입점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맡기는 조항을 도입해야 하며, 상생법은 대기업의 모든 SSM가맹점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 무역수지 4000만달러 흑자

광주·전남 지역의 11월 수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본부세관이 15일 발표한 '2010년 11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결과 광주·전남의 11월 수출은 전월대비 3.2% 감소한 37억 3100만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36억9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흑

자로 나타났다.

수출은 승용자동차(32.4%)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선박(-48.8%), 석유제품(-10.9%) 등에서 감소했으며 수입은 원유(4.1%), 철광(1.3%) 등 주요 원자재 수입이 늘었다.

지역별로 광주는 수출이 수송장비(28.1%), 가죽·고무 및 신발류(3.7%), 반도체(2.9%) 등에 힘입

어 전월대비 7.8% 증가한 12억 1100만달러, 수입은 전월대비 2.7% 감소한 4억 7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수출이 전월대비 7.7% 감소한 25억2000만달러, 수입은 전월대비 3.0% 증가한 32억1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돈·명예·신용 몽땅 잃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인터넷 등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줄이고자 이 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퇴직금을 주

지 않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이름, 업체명, 체납 내용 등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파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 고용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또 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받거나 대출한계를 연장할 때,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리해진다.

금융결제 대상자에는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과 직전 1년 동안 임금을 2회 체불한 사업주도 포함된다. 단,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하면 명단공개와 금융결제 대상에서 빠진다.

고용부는 또 임금이 체불된 사업주 및 해당 사업주가 정부포상에서 배제되도록 '정부포상추천 제한제'를 도입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

KBC 광주방송 문화탐방

겨울방학 신나는 해외여행

무안에서 떠나요~

겨울 최고의 가족 휴양지
전체의 자연경관을 보유했던
매혹적인 해양스포츠포지
현주만 디너쇼

무안 ↔ 광 전세기

2011년 1월 6 10 14 18 22 26 6회 취항

1. 광 관광 3박 4일 : 949,000원~
2. 광 골프 3박 4일 : 1,449,000원~ (36홀부터)

- 특전 : 현지 미팅 & 샌딩 / 특식 3회 : 스테이크, 자메이칸 그릴 BBQ, 참치회
-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TAX, 미팅 & 샌딩, 1억원 여행자 보험, 시내관광, 전일정 식사
- 불포함 : 유류할증료, 가이드팁(성인20\$, 소인 10\$)

예약문의 : 롯데JTB첨단점 첨단 롯데마트 2F / 062-973-9114
클럽모두 동광주 홈플러스 B1 / 062-269-9363

태국 북부의 꽃이향아리
물거름이 가득한 꼬끼리 트레킹
원시 자연에서 팻목 트레킹
메콩강에서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고산족 마을에서 만나는
카만족

무안 ↔ 치앙마이 전세기

2011년 1월 5/ 9/ 13/ 17/ 21/ 25일 6회 취항

1. 치앙마이 관광 4박 6일 : 1,149,000원~
2. 치앙마이 골프 4박 6일 : 1,299,000원~ (72홀부터)

- 특전 : 골든 트라이 앵글 3개국 관광(태국/미얀마/라오스) 전용 이동수단 체임(당나귀 마차, 롱테일보트, 록클, 코끼리 트레킹, 우마차, 대나무무엇)
-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TAX, 미팅 & 샌딩, 1억원 여행자 보험, 시내관광, 전일정 식사, 기사가이드팁
- 불포함 : 유류할증료, 미얀마비자비 40\$

협찬 | Continental Airlines | 컨티넨탈 항공 | 태국관광청 | WOOLIA 우림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에 정확히 준수합니다.

- 필수 경비 포함 : 여행자보험(해외 1억원, 국내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영이중료, 안내원비용
- 2억 보증보험 가입(보험기간 : 2010년 12월 7일 ~ 11년 12월 6일),
- 경비 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광주시 북구 두암동 575-1 홈플러스 동광주점내 (우)클럽모두 해외여행업 등록
- 최소 출발 인원 : 2명 / 속소 : 2급호텔 이상 / 교통편 : 항공및 버스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